

교대 수시, 내신 6등급도 붙었다 정시 합격선은 4등급까지 하락

종로학원, 올해 교대합격선 공개

수시 등록자 내신 평균 3.61등급
서울교대·한국교원대 모두 하락
춘천교대 수시 6.15등급까지 ↓

2025학년도 교육대학 입시 수시모집 일반전형에서 6등급 학생도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 합격선도 4등급까지 낮아지면서 상위권 뿐 아니라 중위권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7일 종로학원이 교대 중 2025학년도 합격 점수를 공개한 서울교대, 춘천교대, 광주교대, 청주교대, 한국교원대 등 5곳을 분석한 결과 수시 일반전형 등록자 최저(서울교대·청주교대는 등록자 80% 컷) 기준 5개교 평균 합격선은 3.61등급이다. 2023학년도 2.74등급, 2024학년도 3.22등급이었지만, 전년 대비 0.39p 하락했다.

학교별로 살펴보면, 서울교대 수시 일반전형 내신 합격선은 2.10등급으로, 2023학년도 2.06등급, 2024학년도 1.97등급에서 하락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 전년 1.99등급에서 2025학년도에는 2.45등급까지 떨어졌다.

춘천교대는 2023학년도 수시 일반전형 4.16등급, 2024학년도 4.73등급에서 2025학년도 6.15등급으로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101명을 선발한 교직 적인성인재전형의 경우, 6.35등급까지 내려갔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도 연속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23학년도 1.74등급, 2024학년도 2.05등급에서 2025학년도엔 2.25등급을 기록했다.

광주교대는 2023학년도 2.85등급, 2024학년도 3.54등급, 2025학년도 3.54등급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했지



전국교육대학생연합이 지난 2023년 4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만, 60명을 선발하는 수시 전라남도교육감 추천전형은 4.27등급으로 2023학년도 2.77등급, 2024학년도 3.15등급에 비해 하락폭이 매우 크게 발생했다.

청주교대는 2023학년도 2.31등급, 2024학년도 2.92등급, 2025학년도 3.44등급으로 연속 하락했고, 112명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지역인재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 4.07등급으로 2023학년도 2.44등급, 2024학년도 3.08등급에 비해 하락 폭이 매우 큰 상황이다.

정시모집도 합격선 하락세가 뚜렷하다. 등록자 환산점수 80%컷을 공개한 서울교대는 2024학년도 621.74점에서 618.41점으로 3.33점 하락하며, 수시, 정시 모두 2025학년도 합격선이 낮아졌다.

춘천교대는 등록자 수능 등급 최저기준으로 발표했고, 2023학년도 3.57등급, 2024학년도 3.63등급에서 2025학년도 3.82등급까지 하락했다.

한국교원대(등록자 자체 환산 백분위 최저점수 기준)도 2023학년도 93.54점, 2024학년도 90.29점, 2025학년도 89.21점으로 연속 하락하고 있다.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80%컷을 기준으로 공개한 광주교대 역시 2023학

년도 79.17점, 2024학년도 72.17점에서 2025학년도에는 4등급 구간에 해당하는 68.33점으로 합격선이 내려갔다.

단, 청주교대(등록자 수능 등급 80%컷 기준 발표)는 2023학년도 2.75등급, 2024학년도 3.38등급에서 2025학년도 3.25등급으로 0.13등급 소폭 올랐다.

합격점수를 공개한 이들 5개 대학 모두 선발인원을 전년도보다 줄이면서 총 선발인원이 전년 1402명에서 2025학년도 1258명으로 10%가량 줄었지만, 합격선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합격선 하락은 물론, 하락폭 또한 커지면서 교사 관련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상위권 뿐만 아니라 중위권대 학생들에게도 교대 선호도는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내신 합격선이 6, 7등급까지 내려가고 수능 합격선 점수도 4등급 중반대까지 내려가는 상황은 교사와 관련된 정책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초3~6학년 대상 ‘독서 골든벨’ 개최

서울교육청, 교보문고 공동 주최
총 1000명 선착순 참가자 모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오는 6월 14일 서울공예박물관 공예마당에서 ‘모여라! 독서 골든벨’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여라! 독서 골든벨’은 서울시교육청과 교보문고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노원평생학습관과 송파도서관, 양천도서관, 용산도서관이 주관·운영한다.

참가 대상은 서울시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3~6학년생 또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동일 연령 어린이이며, 대회는 예선과 결선을 학년부(3~4학년, 5~6학년)로 나눠 진행된다.

대회 참가자들은 사전에 선정된 학년별 필독 도서 7권을 읽고, 도서 내용

을 바탕으로 출제된 문제를 풀게 된다.

시교육청은 결선에서 최종 12명의 수상자를 선발해 서울시교육감상과 교보문고 대표이사상을 수여한다.

특히 도서 선정에는 사서, 초등학교사, 대학교수, 작가 등 11명의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주제와 수준을 고려한 학년부별 7권의 도서를 선정했으며, 선정도서는 22개 서울시교육청 산하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에서 무료로 대출해 읽을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모여라! 독서 골든벨’ ‘신청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총 1000명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교보문고에서 제작한 참가 티켓이 발급되며, 자세한 내용은 ‘모여라! 독서 골든벨’ 온라인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교육청, ‘북웨이브’ 캠페인 실시

독서실천단 선착순 400명 모집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북웨이브 크루’는 시교육청이 관내 학교·도서관·마을을 중심으로 책 읽기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 추진한 ‘북웨이브’ 캠페인의 두 번째 프로젝트다.

‘북웨이브 크루’는 북웨이브 캠페인을 이끌어갈 시민 독서실천단으로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선착순 400명을 모집한다. 북웨이브 캠페인의 가족 단위 독서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학부모 등 일반 시민과 서울시교육청 도서관·평생학습관 내 독서동아리·학습동아리와 같은 시민 참여 공동체 일원을 대상으로 한다.

‘북웨이브 크루’는 독서 기록·책 추천·필사 등 독서 활동을 하거나 북웨이브 캠페인으로 추진되는 각종 독서 행사에 참여하고, 이를 개인 SNS 등 온라인에 공유하게 된다. 이를 통해 독서 문화 확산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활동 기간은 6월 4일 발대식을 시작



서울시교육청이 독서실천단 ‘북웨이브 크루’ 모집한다. /서울시교육청

으로 11월 예정인 북웨이브 성과공유회까지이다.

‘북웨이브 크루’ 회원에게는 활동 실적에 따라 물방울·물결·파도의 3가지 등급이 부여되며, 등급별로 소정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모든 등급의 크루원에게는 프리미엄 저자강연회 ‘찾아가는 학부모 북콘서트’의 우선 접수권이 제공되며, 소셜미디어(SNS)용 사진 촬영법 및 독서 기록법 등 북웨이브 크루 활동을 위한 특별 강좌도 제공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북웨이브 크루’ 지원을 위한 온라인 안내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유명 브랜드 사칭 사이트’ 주의보

전자상거래센터 피해상담 분석
최근 7개월간 2천만원 피해 발생
“2주 내 미배송 땀 카드사 이의제기”

서울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통해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이트로 유인 후 상품을 결제하게 한 뒤,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하는 이용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7일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7개월간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피해상담 건수는 150건으로, 피해 금액은 190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월에서 9월 사이 유명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 관련 피해 접수는 월평균 3.2건에 불과했으나, 사이버먼데이·블랙프라이데이 등 유명 브랜드 및 쇼핑물의 할인 행사가 집중된 연말

부터 급격히 증가했으며 최근에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시청 관계자는 “유명 패션 브랜드 사칭 사기 사이트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SNS 광고를 통해 연결되며, 해당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와 외관이 유사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이를 믿고 구매했다가 피해를 본 경우가 많다”라며 “유명 패션 브랜드 외에도 스토크, 자라홈 등 유명 생활용품 브랜드를 사칭한 사기사이트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사기사이트는 일반적인 도메인 확장자인 ‘*.COM’이 아닌 ‘*.TOP’, ‘*.SHOP’, ‘*.LIVE’, ‘*.VIP’ 등 신규 도메인 확장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SNS 광고로 연결된 온라인쇼핑몰은 도메인 주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러한 사칭 사기 사이트의 경우 대부분 해외서버를 통해 운영

되고 있어 피해 발생 시 즉각적인 사이트 접속차단 등 조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시는 온라인쇼핑몰 사기 피해 예방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피해 발생 시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SP(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에 즉시 접속 차단요청이 가능하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사기 사이트로 의심되면 상품 페이지와 주문·결제 내역 등의 화면을 캡처해 보관하고, 결제일로부터 2주 이내에 상품이 배송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해외 결제 건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과 관련 증빙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경우, 조정절차를 거쳐 결제 취소 및 환불 등의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 ‘글로벌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 성료

베트남에 국내 기업들 진출 지원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베트남 박닌시에서 씨젠의료재단 등과 ‘글로벌 산학협력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호서대, 씨젠의료재단, 베트남 박하기술전문대, 아시아한상 베트남북부지회 및 씨젠의 해외사업 담당 자회사 오픈헬스케어 관계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산학협력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베 글로벌 산학협력 고도화 방향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산학협력 전략 ▲글로벌 인재양성 및 취업 연계 성과 등이 발표됐다. /이현진 기자

호서대와 씨젠의료재단은 지난 1년간 글로벌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픈헬스케어의 ‘하노이 메디컬 센터’ 설립을 지원했다. 이 센터는 맞춤형 질병검사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호서대는 박하기술전문대에서 선발된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기업문화 이해,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했으며, 해당 인재들은 현지 의료현장에 투입돼 효과적인 실무 경험을 쌓는 성과를 거뒀다.

한정수 호서대 전자재료공학과 교수는 “호서대와 씨젠의료재단의 협력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한 모범사례”고 말했다.